

캐나다 최대 통신사에 7억달러 지원 무보, 삼성제품 수출에 금융 뒷받침

북미시장 판로 확대 기대감 커져 디바이스 파이낸싱 전략 '주목' 자본재 중심서 소비재로 확대 '수출기업 시장 개척, 적극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캐나다 최대 통신사업자인 벨 캐나다(Bell Canada, 이하 벨)의 삼성전자 통신기기 구매 프로젝트에 7억 달러(약 1조원) 규모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벨은 약 22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캐나다 시장점유율 1위 통신사업자로, 이번 무보의 금융지원을 통해 조달한 자금 전액을 삼성전자 통신기기 구매에 활용할 예정이다.

무보는 국내 통신기기의 해외 판로 개척과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 통신사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 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한 '디바이스 파이낸싱(DeviceFinancing)'을 제공해오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미국 주요 통신사에 10억 달러 규모의 한국산 4G/5G 네트워크 장비 구매자금을 지원하며, 북미 시장 내 우리 기업의 입지를 강화한



무역보험공사 사옥. /무역보험공사

바 있다. 또 유럽 시장에서도 2021년 폴란드, 2023년 프랑스 주요 통신사에 각각 1억 유로, 3억5000만 유로 규모의 금융을 제공했었다.

무보는 이번 금융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캐나다 시장점유율 확대와 현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무보는 특히 최근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수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

기 수출금융 제공 시, 기존 자본재 중심의 금융지원 전략에서 벗어나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외 주요 플랜트 발주처에 우리기업의 수주를 전제로 사전에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사전금융한도 발주처를 기존 공공 부문에서 우량한 민간 부문으로 확대해 우리기업의 수주기회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 해외지사의 해외 프로젝트 발굴과 수주지원 기능을 강화해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 4월 워싱턴 지사를 설립해 미국의 관세정책 등 정치·경제 동향 파악에 나서며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 캐나다 통신사 금융지원 사례와 같이, 우리 기업 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한 해외 발주처 대상 금융제공은 수출 증진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중소 전자제품 생산자도 재활용 책임진다

환경부, EPR 제도 내년부터 확대 적용

내년부터는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책임이 중소형 등 모든 제품 생산자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50종의 중대형 가전제품 생산자만 이 같은 자원순환 동참 의무를 지고 있다.

환경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 건조기, 휴대용 선풍기 등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EPR 제도는 제품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한 제도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EPR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새롭게 EPR 대상이 되는 업체들은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 받는 대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간 51억 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등을 재활용할 수 있게 돼, 철·알루미늄 등 유가자원을 연간 약 7만6000톤(t)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수도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저공해 운행 지역에서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규정하고, 이곳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저공해 운행 지역은 저공해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이 해당 지자체의 조례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다. 이 두 개정안은 오는 23일 시행에 들어간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송미령 "농산물 유통구조 효율화 총력"

농식품부 장관

온라인도매시장 내실화 위한 간담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유통구조의 효율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류 체계 개선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송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양재동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도매시장 내실화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인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역시 온라인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산지 규모화, 물류 체계 개선 등 농산물 유통구조 효율화를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장운영자 역할을 맡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비롯해 농협경제지주, 판매·구매자(서산아그로, 동화청과, 서원유통)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출범 첫해 거래실적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했다. /농식품부

6737억 원을 기록하며 조기 안착한 온라인도매시장의 올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 유통 효율화 사례 발굴 등 온라인도매시장 내실화를 위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핵심 거래 주체별 유통비용 절감 ▲유통경로 효율화 등 비즈니스 모델 발굴 ▲우수사례 거래 분석을 통한 생산자·소비자 후생 개선 등 성과 확산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연계 온라인도매시장 통합물류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허위고지 '철폐'

그랜드체이스클래식, 과징금 3600만원 확률 숨긴 포인트 적립제 방식 밝혀져 소비자 유인해 30억 판매... 기만행위

온라인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당첨 구조와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게임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온라인 PC 게임인 그랜드체이스클래식 운영사인 코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랜드체이스클래식은 다중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이팅 게임(MMORPG)으로, 캐릭터의 종합전투력을 높여 몬스터 등을 사냥하고 상위 모험을 즐기는 온라인 게임이다.

게임 이용자는 공격력, 방어력 등 캐릭터가 보유한 요소와 그가 착용한 장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종합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이템을 획득하고자 하는데, 게임 내 미션을 수행하거나 개

설된 상점에서 구매하는 방법과 '구슬 봉인해제주문서(이하 주문서)'를 구입해 당첨시 얻는 구슬봉인코드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게임 운영사인 코그는 2022년 8월 3일 ~ 2023년 2월 27일까지 해당 주문서를 통해 뽑기 형식으로 판매하며, 뽑기마다 정해진 당첨 확률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구조라고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횟수 전까지 당첨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3회 뽑기까지는 당첨 확률이 0%이고, 이후 뽑기 횟수가 더해질수록 당첨 확률이 점차 상승하는 이른바 '포인트 적립제' 구조였다. 또 이용자가 이미 뽑기를 통해 장비를 보유한 경우 당첨 확률은 더 떨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는 소비자의 해당 아이템 구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주문서의 당첨 구조가 일반적인 확률에 따른 것이 아닌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

을 은폐 또는 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코그는 이런 방식으로 총 30억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들이 주문서를 1회만 해제하더라도 확률에 따라 구슬봉인코드를 획득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주문서를 구매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는 소비자 유인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이런 방식으로 총 30억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한 점, 코그가 확률 정보 공개 이후 다수 민원이 있었다는 점을 통해 실제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결과까지도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수익성과 밀접히 연관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 정보에 대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전, 준법경영실로 청렴업무 이관

전 직원 자율서약으로 윤리 실천

한국전력이 청렴업무를 사장 직속 전담조직으로 이관하고 전사적 실천으로 윤리경영을 내실화한다.

한전은 14일 전 임직원의 청렴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

윤리 경영 실천서약'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청렴윤리경영은 기업이 지속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법과 사회적 통념을 포함하는 각종 규칙을 준수하는 경영방침을 말한다.

한전은 높아지는 국민의 눈높이와 대내외 청렴윤리경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감사실에서 수행하던 청렴

업무를 사장 직속 전담 조직인 '준법경영실'로 이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3월 31일 한전 본사에서 청렴 윤리경영 실천서약식을 시행, 경영진의 솔선수범 실천의지를 전사에 전파한데 이어,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렴 윤리 자율실천 서약'을 이날부터 23일까지 진행해 청렴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기대, '안전관리 집중주간' 운영

5일간 전사적 점검, 체험 진행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는 14일~18일까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관리 집중주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안전의 날(4월16일)'을 계기로 마련돼 올해 4년째 운영되는 안전관리 집중주간은 전 구성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5일간 전사적 안전 점검과 체험으로 운영된다.

먼저, 전 부서 관리감독자 39명은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유해·위험요인 발굴을 시작한다. 또 대학 내 상주 중인 시설관리, 경비, 통학버스, 전산 유지관리 등 협력사와 함께하는 '합동 안전보건점검'이 진행된다.

16일에는 '연구실 폭발로 인한 화재 발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소화약물 질 누출 대응 △산불·화재 대피 △재해자 구조 등 현장 훈련과 함께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는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안전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세종=한용수 기자